COVID 19
마음방역
현대불교
2020년 4월 8일 수요일 제 1288 호

꽃에게 안부를 묻다

다들 잘 있을까. 거짓말 같은 시절. 꽃은 피건만 계절은 없고, 저녁은 있건만 잠들지 못하는 세상. 나서는 식구의 뒷모습에 부적을 쓰고, 거짓말 같은 부고들로 하루가 간다. 어디서 왔을까. 이 시절은. 서로의 얼굴을 바라 볼 수 없고 멀찍이 걸어야만 하는, 어둡고 무거운 이 시절은 어디서 왔을까. 거짓말이었으면….

따뜻한 말 한 마디 주고받을 수 없는 오늘.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. 모두가 아픈 오늘. 병실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. 환한 꽃다발 품고 서로의 병실을 찾자. 언젠가 거짓말처럼 끝날 일이라 믿으며, 그렇게 희망의 법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병실을 찾자. 이 봄이 가기 전에, 저 꽃들이 지기 전에.

죽음이 삶이 된 이 시간에도 돌아온 꽃들로 계절은 자라고 따뜻한 바람으로 풍경은 넓어진다. 우리 예전처럼 마주앉아 깊은 계절이 되고, 손잡고 걸으며 따뜻한 풍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.

모두에게 꽃을 보낸다. 모두의 안부를 묻는다. 다들 잘 있기를….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

〈마음방역 관련 특집 2 · 3면〉